

“치과의사”의 아버지 뵈에르 포샤르 (Pierre Fauchard)

資料提供 : 奇 昌 德

1728년 뵈에르 포샤르(Pierre Fauchard)는 “LE CHIRURGIEN DENTISTE 外科齒科醫”라는 2권으로 된 치과의서를 저술하였다. 이 치과의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발간된 치과의학의 종합의서로서 이 저서로 FAUCHARD는 근대치과의학을 창시한 빠이오니아로서 세계의 치과의사들로부터 “치과의학의 아버지”라는 최고의 존칭으로 존경받고 있다.

Fauchard가 활동한 시기는 지금부터 약 300년전 18세기의 전반으로 살라당(大道義者)이나 바바-히루지양(理髮外科醫師)등이 의술비슷한 치료를 시술하고 있을 무렵이다. 유달리 손재간이 좋은 이발사가 간단한 외과수술이나 방치를 일상의 일로 하고 있을 시기로 혼자서 고안 습득한 기술은 비술 비법으로서 남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 비술 비법을 밀천으로 삼고 자신을 과시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Fauchard는 전문서의 출판이라는 형태로 개업의의 모든 것, 즉 그들의 비법을 모아 공개하는 근세초기의 치과의학상식을 기초로해서 기초의학에서 관련의학, 의용재료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대하여 자신의 치험을 통한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의 치과의서를 저술하게 된 것이다. 그 전편에 이르는 풍부한 실증예와 예리한

임상의 관찰은 의과의를 비롯하여 의학관계자들을 경탄시켰으며 과학적이며 계통적인 본격적인 의학서로 인정받았다. Fauchard는 이 “LE CHIRURGIEN DENTISTE 外科齒科醫”를 발간함으로써 그는 치과의학사상 가장 영향을 준 인물로 평가받게 되고 이러한 뜻에서 이 책은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치과의학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치과의서로 꼽고 있다.

이 초판본은 출판 당시는 프랑스장이라고 하는 본문만을 가철한 책이었으나 이것을 구입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제본으로 하는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 책의 제본이 한책 한책 모두 다르다. 필자가 본 책은 다갈색(茶褐色)의 가죽표지에 “조리오 도 후류리”라는 왕관을 배치한 귀족의 가문(家紋)이 금박으로 압인되어 있고 속지에는 로-마수자로 1728년이라고 기입되어 있었다. Fauchard는 초판을 간행한후 18년이 지나 제2판을 출판하였는데 개정증보된 이 책에는 치조농루증(齒槽膿漏症)이 기술되어 있어 고전적으로 치조농루증을 Fauchard병이라고 불리어 온 연유이기도 하다. 제3판은 Fauchard가 타계하고 25년이 지난 후에 출판되었으므로 Fauchard의 의사가 반영된것이 아니고 제



筆者가 所藏하고 있는
Le Chirurgien Detiste I, II 권>

2 판을 그대로 증판한것이 아닌가 한다. 즉 속지에 1786년, 제3판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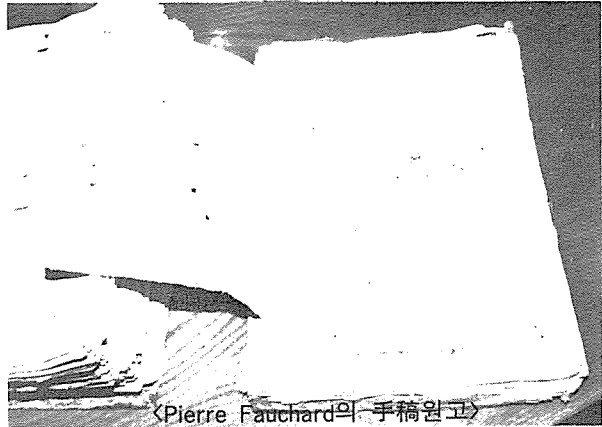
이 “LE CHIRURGIEN DENTISTE 外科齒科醫”를 초판이 나온지 5년정도 후에 옆나라 독일(푸로이센)에서는 “Pierre Fauchard씨의 프랑스 치과의사”라는 제목을 붙여 번역서를 출판하였다. 이상 4종의 Fauchard저 “LE CHIRURGIEN DENTISTE”가

▶ 필자약력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출(1948)
- 가톨릭의과대학교수(치과과장) 1960~67
- 가톨릭의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취득(1965)
- 대한 번역학회 부회장(1978~1980)
- P.F.A.한국회 회장역임·고문(1987~현)
- 서울중로구에서 슈치과의원 개원(1967~현)
- 저서 : 한국치과의학사·한국치과의사논문 총취역서 : 의학면역학

전해지고 있으며 파리의 슬본누에 접한 오데온가의 의학교길 12번지. 거리의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파리대학 의학부의 도서관에는 Fauchard의 초판 원고 즉 손으로 쓴 원고(手稿)가 남아 있다.

도서관 장서목록의 원고 장(章)에 기재되어 있는 “354-2232”가 Fauchard 수고의 장서번호이다. 여기에는 “외과 치과의, 치아의 개론, 파리의 외과치과의 Pierre Fauchard, 1728년 출판, 18세기의 서적 422매 350×230mm 배혁장정(背革裝丁)”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이 260여년전 Fauchard가 고심삼담, 삭제, 정정, 가필하여 추고를 거듭하여 만지고 또 만지며 사랑한 생원고의 묶음이 서고에 놓아두지 않고 도서관 사무실에 있는 낡은 대형금고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Fauchard의 위업을 발굴하게된 것은 1892년 G-비오(George Viau)가 파리대학 이학부의 도서관에서 오래전부터 Fauchard의 수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찾던 어느날 발견된데에서 부터이다. 그후 1923년, G. 비오는 1734년, Fauchard가 56세 때 파리교외의 오루세이에 구입한 별장을 찾아내고 이 사실이 치과계에 알려지면서 이 별장은 문화재로 등록되게 되었다. 지금은 “구란메니루의 소유지 오루세이의 중앙병원 정신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정문의 한쪽 기둥에는 “Pierre Fauchard 파리의 외과치과의 1728년에 펴낸 <외과치과> 이 저자, 근대치과의학의 창시자로서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앞뜰 잔디밭 속에는 흰 대좌에 놓여있는 흉상, Fauchard의 영자(英姿)가



〈Pierre Fauchard의 手稿원고〉

서 있다.

1936년 미국의 치과의사 에루마 S. 베스트(Elmer S. Best)를 위시하여 치과계의 인사 몇명이 모여 치과의학관계의 출판물에 Pierre Fauchard의 이름을 따서 붙이였다. 그 이유는 Pierre Fauchard의 정신을 이어 받아 1) 직업봉사로서 치과의료를 진전시키고, 2) 치과의학의 학문교류로 양질의 진료를 확대하고, 3) 학술연구의 권장과 시상을 통해 교육기준의 향상과 학문의 질적향상을 이념으로 하고,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윤리와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였다. 이 출판물은 드디어 Pierre Fauchard

Academy의 조직과 동시에 회지로 서 치과의사의 길잡이가 되고 취지는 곧 학회의 강령으로서 회원은 누구나가 입회때에 엄숙히 선서하게 되었다.

이상인 Pierre Fauchard가 남긴 그의 유물과 그를 추앙하는 표현의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8년<齒苑>에 崔鎭煥이 “삐에르 포샤르의 生涯와 業績”이라는 제목으로 Fauchard를 소개하였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李春根박사는 1959년 Pierre Fauchard의 생가(生家)를 직접 탐방한 바 있다. 1980년에는 삐에르 포샤르 學會 韓國會도 창립되어 많은 치과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삐에르 포샤르에 대한 문헌

- 1) 李春根 : Pierre Fauchard生家探訪, 1959. 5.10.
- 2) 崔鎭煥 : <삐에르 포샤르의 生涯와 業績> 齒苑 第2號, 1968.
- 3) 奇昌德 : <Pierre Fauchard Academy 美日合同會議에 다녀와서> 齒科界 11月, 1979.
- 4) 奇昌德 : <Pierre Fauchard의 生涯와 Le Chirurgien Dentiste(外科齒科醫)>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4(5). 1986.
- 5) 金圭炆 : <齒科醫學의 專門化> 안녕하십니까, 그림서양의학사 64. 1986.
- 6) 金鴻基 : <삐에르 포샤르의 精神을 이땅에>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8(7), 1990.
- 7) 中原 泉(奇昌德 譯) : <Fauchard 探訪>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8(7), 1990.